

해외학술DB 유통현황 및 개선방향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임 석 종

I. 서 론

교육부의 교육정보화추진 계획에 따라 대학 및 대학도서관의 전산시스템과 통신망이 본격적으로 구축된 1995년 이후 연구활동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서지간행물(Bibliographies)이 국내 대학도서관에서 CD-ROM으로 서비스되기 시작하였다. 1997년 웹기반의 온라인 데이터베이스가 본격적으로 서비스되자 대부분의 CD-ROM들은 다시 Web DB로 대체되어 가고, 최근에는 전자저널을 포함한 원문 데이터베이스의 출판 증가와 Web Interface의 발전에 따라 전자자료에 대한 이용자 요구가 날로 늘어나고 있다. 이들 웹기반의 데이터베이스는 이용의 효율성이 높은 반면 가격이 비싸고 데이터베이스에 따라 이용환경과 가격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선정과 구입과정에서의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대학도서관이 각각 데이터베이스를 선정하고 구입을 위한 가격이나 이용조건 등의 계약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한데, 전문인력과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여 공급자 중심적인 구입을 함으로써 예산이 낭비되고 효율적인 학술정보 서비스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해외데이터베이스 구입예산을 절감하며, 수요자 중심의 데이터베이스 선정과 가격 및 계약조건 협상을 전담하여 국내 해외 데이터베이스의 유통체계를 정립하고 대학도서관 해외데이터베이스 구입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컨소시엄 운영이 절실히 필요하다.

II. 연구의 필요성

1) 인터넷의 발전과 이용자들의 자료이용 패턴의 변화

학술정보 검색의 기본적인 도구인 서지데이터베이스(Reference Database)와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전자저널에 대한 웹 기반의 User Interface의 개발로 이용자들은 색인·초록 DB의 검색 결과로 확인된 정보를 자신의 데스크탑에서 직접 인용하거나 온라인 도서관 소장목록에 연결, 확인하여 상호대차를 신청한 다든지 구독중인 전자저널과 연결하여 바로 원문을 읽고 인쇄하며, 데이터의 메일 전송과 다운로드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전자자료의 이용은 최근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OhioLINK의 Electronic Journal Center에서 18개월 간의 이용을 분석한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무려 535,000건의 논문을 다운로드하여 오하이오 회원대학의 개별 평균 이용건수는 인쇄저널 이용의 3배를 넘었으며, 데이터 다운로드 이용건수의 50퍼센트 이상이 해당 도서관에서 구독하고 있지 않는 저널에 관한 것이었음이 밝혀져 개별도서관이 인쇄본으로 구독한 종수와 전자저널의 공동구매로 이용한 종수를 비교할 때 컨소시엄으로 공동구독함으로써 구독종수 대비 이용종수는 3배에서 8배로 높아 상당한 저널구입의 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1998년 3월 21일부터 2000년 5월 2일까지 포항공대에서 실시한 자료형태별 학술지 이용현황 조사결과에 따르면 인쇄학술지를 월 평균 934회 이용하고 전자저널은 3,700회 이용하여 전자저널을 4배 이상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독 종수에 대한 이용률과 자료구입예산의 투자 효율성에 있어서도

전자저널의 이용률이 현저히 높게 나타나 투자 효과 면에서 전자저널이 훨씬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을 주관기관으로 하여 국내에서 처음으로 웹기반의 데이터베이스를 도입하여 이용한 1998년을 기준하여 최근 3년간의 Reference Database와 전자저널의 이용은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이러한 전자자료의 이용은 우선 정보에의 접근이 쉽고 편하다는 장점으로 급속히 팽창하고 있어 앞으로의 전자자료 구독 비율과 구독방법 등에 대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2) 국내 대학도서관 자료구입예산의 위축

1995년부터 1999년까지의 20개 국·공립대학교 도서관 자료구입비의 증가추세를 분석한 결과 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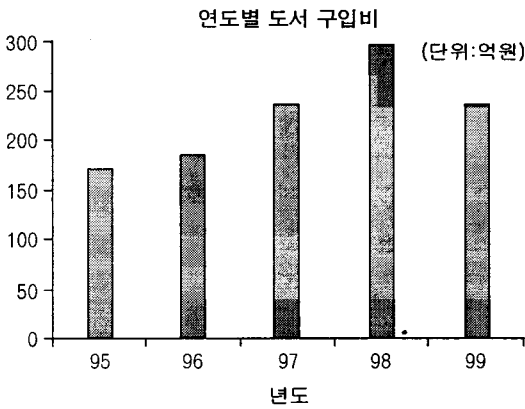


그림 1. 연도별 도서구입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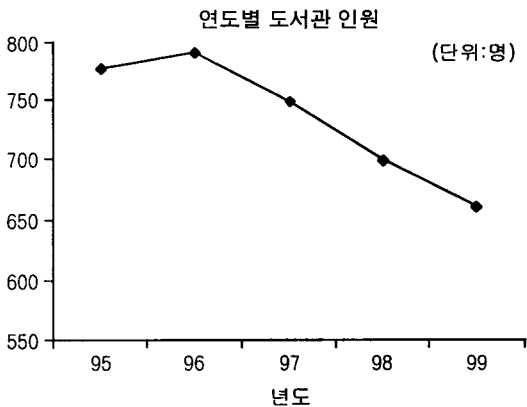


그림 2. 연도별 도서관 인원.

과 같이 대학도서관의 도서구입비는 1995년부터 서서히 증가하다가 1998년을 기점으로 하여 1999년에 급격히 감소하였다. 이는 1997년의 IMF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1998년부터 삭감된 예산이 1999년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림 2에서 보는 것과 같이 세계적으로 출판되는 도서비는 해마다 인상되고 있어 외국의 학술정보를 수입하여 제공하는 국내 대학도서관의 자료구입 예산이 학술지 및 단행본 인상률인 최소한 5~16퍼센트 이상의 증가가 유지되어야 하나 예산의 감소로 인하여 대학에서의 외국학술정보 공급이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실정이다.

다행히 대학도서관에서는 출판사와 정보제공사를 통하여 직접 구독하던 DB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통하여 공동구매함으로써 상당한 예산 절감의 효과를 보고 있다. BIOSIS Previews의 경우 BIOSIS/Ovid 사로부터 직접 구입하였을 때 1999년도 구입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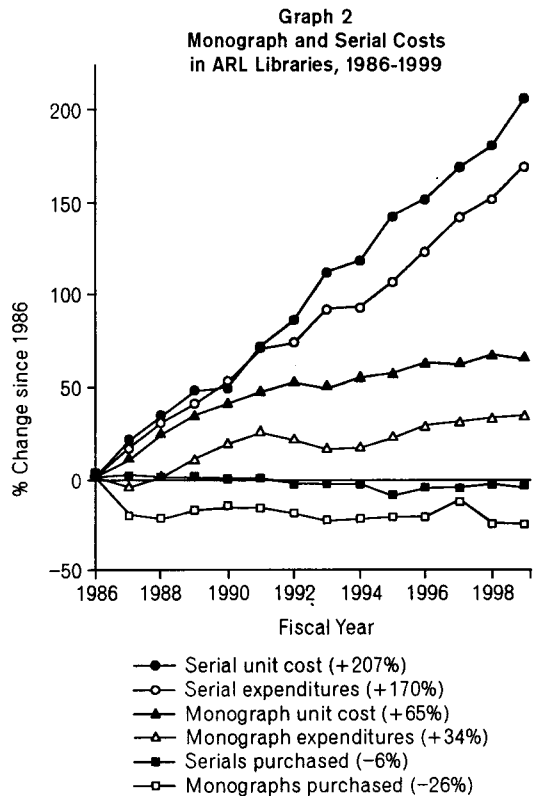


그림 3. 북미지역 연구도서관 단행본/학술지 가격 변동.

\$28,005.00이 2000년도 공동구매에서 5개관 이상의 컨소시엄 구입가격인 \$19,425.00으로, INSPEC은 PQD Interface로 1999년 가격 \$26,100.00이 2000년도에는 Ovid interface로 컨소시엄 가격 \$18,900.00으로 협상되었다. 또한 각각의 DB에 대한 일부분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 대학의 구독료 부담은 더욱 절감되었다. 따라서 정보화 환경에 따라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전자자료에 대한 공동구매는 대학의 효율적인 구입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 하겠다.

3) 대학도서관 직원 감소와 해외DB 구입협상 업무부담

1995년부터 1999년까지의 20개 국·공립대학교 도서관의 도서관 직원의 증가추세를 분석한 결과 그림 2와 같이 1996년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이는 오래 전부터 시행되어 온 정부의 구조 조정 계획에 연유한 것으로 판단된다. 도서관 전산화로 인하여 이용자 서비스 부문은 상당한 개선이 있었으나 도서관 직원들의 업무부담은 사실상 늘어나 이중적인 부담을 안고 있는 실정인 바, 전자자료의 협상을 국가 주도적인 컨소시엄 주관기관에서 수행함으로써 각 대학도서관이 협상 수행 인력에 대한 추가적인 부담을 덜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전자자료 구입을 위한 협상 인력을 공유하는 것이다.

III. 연구 내용

1) 대학도서관 컨소시엄의 발전

American Library Directory에 의하면 미국과 캐나다에서만 12,700개의 도서관들이 500개 이상의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도서관이 한 개 이상의 컨소시엄에 가입하고 있고 서너 개의 컨소시엄에 가입한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도서관 컨소시엄들은 다양한 역사를 가지고 발전되어 왔다. 특히, 미국은 도서관 컨소시엄(또는 “네트워크”)의 메카로 알려져 있다. 즉 1930년대에는 주에서 할당받은 도서관 예산을 분배하는 수단으로서 지역 네트워크가 발전했으며, 1967년에는 오하이오대학 도서관 센터(OCLC the Ohio College Library Centre. 현재의 OCLC Online Computer Library Center)가 설립되고 70년대에는 이러한 지역 네트워크가 질적인 변화를 겪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OCLC는

NELINET, ILLINET, PALINET, SOLITNET 등 지역 네트워크들간의 서지목록 서비스 공유를 증대했다. 수백 개의 기관들로 이루어져 있는 이들 지역 네트워크는 또한 OCLC 운영의 주축이 되었다. 미국에서 OCLC가 등장한 것과 거의 동시에 캐나다, 영국,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MARC 목록 데이터를 공유하는 네트워크들이 등장했다.

80년대에는 여러 그룹의 컨소시엄들이 서로 다른 동기를 가지고 발전했다. 이들 여러 그룹의 컨소시엄의 가장 주된 동기는 통합 서지목록(union catalogue) 및 연속간행물 종합목록(serial listing)에 따른 상호대차 서비스와 수서의 공유였다. 또 다른 동기는 도서관 시스템의 공유로서 미국에서는 주의 기금으로 통합 도서관 시스템을 공유하는 것을 선호하였으며, 이에 따라 새로운 컨소시엄들이 생성되었다. 세 번째 동기는 많은 주들이 도서관 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제공했던 것도 컨소시엄 발전과 관련이 있었다. 몇몇 주들이 소규모의 공동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는 대신 지역 네트워크에 자금을 지원했기 때문이다.

90년대에는 80년대의 주요 동기들과 함께 전자 데이터베이스 라이선스와 서비스를 위한 구매 및 협상력 제고가 소규모 도서관 컨소시엄 구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동기가 되었다. 기존의 지역 네트워크들은 이미 80년대에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제공업체들과의 협상을 시작했고, 90년대에는 엄청난 수의 도서관 컨소시엄이 구성되었고, 또 구성 중에 있다. 크고 작은 규모와 공식 비공식을 막론하고 많은 새로운 그룹들이 특히 전자 데이터베이스 라이선싱을 취급하기 위해 생성되었다. 이러한 그룹들은 기존의 지역 네트워크들과 함께 국제 도서관 컨소시엄 연합(International Coalition of Library Consortium)과 같은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또는 메가 컨소시엄을 만들기에 이르렀으며 현재 ICOLC에는 북미지역, 유럽, 중국, 오스트레일리아, 남아프리카, 이스라엘 등 전세계 90여 개의 컨소시엄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몇몇 경우에는 컨소시엄 자체에서 소유하고 있는 서버로 공동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2) 국내 대학도서관의 해외DB 구입 현황 및 문제점

국내 대학도서관들은 도서관의 전산화와 도서관

간 네트워크 형성이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1990년대 중반 이후 CD-ROM 등 해외 학술DB를 개별적으로 구입했다. 전자매체의 구입과 이용에 대한 전문 지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국내 대행업체들을 통한 해외DB 공급은 고가 구입 등 많은 부작용을 가져왔다. 또한 1997년 업체가 주도한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고가의 해외DB를 무분별하게 구입함으로써 고가의 전자자원을 국가적인 라이선스를 통해 많은 기관이 저렴한 비용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고 전체 라이선스 비용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는 중앙정부가 장기적인 계획이 없이 도서관에 기금을 제공하고 단기간에 이를 사용해야 하는 도서관의 부담으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이다.

국외의 많은 대학도서관들은 일찍이 도서관 간 상호협력에 보편화되어 있고 도서관 전산화 단계부터 도서관간의 협력과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상호대차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특히 매우 고가인 전자정보의 등장으로 자료비의 상승과 도서관들의 예산 부족으로 이어져 도서관간에 더욱 유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미국은 각 지역별로 많은 컨소시엄이 형성되어 있고, 영국, 중국 등은 국가적인 컨소시엄 체제를 형성하여 전자자원의 효율적인 도입과 이용을 도모하고 있다. 각 나라의 도서관들은 지역 또는 기관간에 협력 방법은 다르지만 보다 효율적인 전자정보의 도입을 위해 범 국가적인 컨소시엄을 마련하는 일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국내 대학도서관의 경우 1997년 말 IMF 상황하의 높은 환율로 인한 자료구입 예산의 부족으로 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해외 정기간행물의 분담 수서 및 공동 활용을 도모하게 되었다. 또한 최근에는 국가의 지원하에 전국 규모의 컨소시엄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각 도서관의 예산절감 및 효율적인 서비스 수행에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컨소시엄을 통한 전자정보 자료를 구독하는데 있어서 기반 조성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동안 국내 대학도서관들이 추진하고 있는 전국적인 규모의 컨소시엄과 주요 지역협의회의 활동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 해외학술DB 공동구매 모델

소유권과 이용을 위한 접근에 대한 개념이 분명한

인쇄자료와는 달리 전자자료는 일정한 기간 동안의 적절한 사용을 정의하는 라이선스의 범위 안에서 보통 출판/정보제공사와 구독기관 사이에 협상된 계약에 의해 소유와 접근에 대한 권한이 정해진다. 따라서 전자자료를 공동구매하는 컨소시엄의 모델은 컨소시엄의 성격과 추진 목표, 구매 협상을 추진하는 데이터베이스의 종류와 이용 환경에 따라 다양한 모델을 채택하게 된다.

이 연구에서는 관리운영모델과 DB 공동구매 과정에서 제기되는 협상모델, 가격 모델, 구독료 배분 모델, 이용모델, 아카이빙 모델, 평가 모델의 일곱가지 모델을 제시하였다.

가. 관리운영 모델

컨소시엄의 관리 운영모델은 중앙관리 모델과 공동관리 모델, 용역관리 모델로 나눌 수 있다. 국가 주도적인 컨소시엄에서는 주로 중앙관리 모델을 채택하고 있으며 강력한 리더십으로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DB를 협상하고, 이용을 위한 기반시설의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불필요한 낭비를 최소화 할 수 있다.

(1) 중앙관리 모델

중앙 집중식 컨소시엄 관리모델은 별도의 인력과 예산으로 운영된다. 국가 또는 지방정부의 재정지원으로 국가단위 또는 지역단위 라이선스의 데이터베이스를 도입하여 전국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거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필요한 데이터베이스를 도입하는데 요구되는 소프트웨어의 개발이나 이용환경을 위한 기반 조성을 지원함으로써 각 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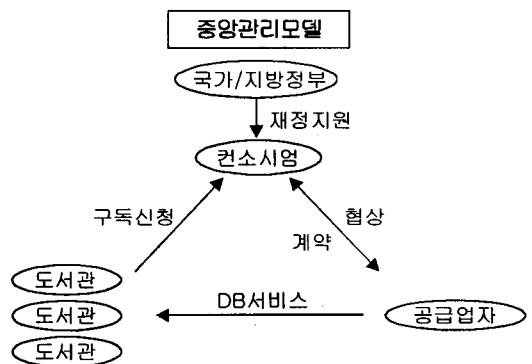


그림 4. 중앙관리모델의 운영체계도.

이나 연구기관에서 데이터베이스 도입에 따르는 전체적인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데이터베이스 도입에 따르는 협상을 국가나 주에서 주관하여 각 기관의 인력과 예산을 줄이고 자료의 공유와 협동이용을 이끌 수 있다.

중앙집중식 컨소시엄에서는 전국적인 국가 라이선스로 계약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국가 라이선스는 여러 출판업자들의 콘텐츠에 대해 단일한 라이선스 계약을 하고, 국가 전체의 대학 및 연구기관들이 임의로 전자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한다. 출판사나 정보제공사로부터 전자데이터베이스를 구입할 때 도서관이 개별적으로 구매 협상을 하는 것보다 컨소시엄에서 국가 라이선스로 구입할 때 비용 면에서 훨씬 효율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전세계적으로 전국적 라이선스들이 검토되고 있다.

(2) 공동관리 모델

컨소시엄의 회원기관이 공동으로 운영 관리하며, 컨소시엄 운영비를 회원들로부터 징수하고 외부기관으로부터 특별 기부금을 받기도 하는데 어떤 컨소시엄은 운영비가 전혀 없이 컨소시엄 활동을 하기도 한다.

캐나다의 COPPUL (Council of Prairie and Pacific University Libraries)과 같이 15개의 모든 멤버들이 호스트 서버 구입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멤버들은 ERL과 Ovid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이 서버의 데이터베이스에 액세스하도록 하며, 한 명의 풀타임 직원과 두 명의 파트타임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가 하면 7개의 종합대학으로 이루어져 있는 WRLC (Washington Research Library Consortium)는 미국내에서도 가장 통합도가 높은 컨소시엄으로서 16명의 직원을 두고 완전 자기 자금으로 운영하면서 다양한 전자자료 구입, 통합 서지, 공동 저장 시설 등을 포함하는 온라인 도서관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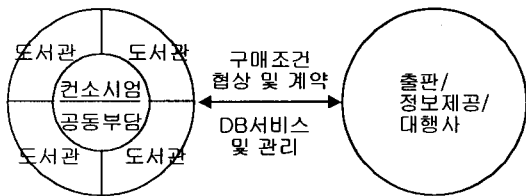


그림 5. 공동관리모델의 운영체계도.

(3) 용역관리 모델

컨소시엄 운영에 있어서 관리대행사를 지정하고, 구독하는 데이터베이스에 따라 구독관리 대행사와 이용관리 대행사를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로 대표적인 예가 영국의 NESLI이다.

이러한 관리대행사를 사용함으로써 구독하는 데이터베이스의 대금 지불과 구독을 적절하게 협상하고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컨소시엄을 위하여 특별히 개발된 인터페이스와 웹사이트는 콘텐츠에 대해 보다 빠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게 하고, 모든 멤버들은 자신들이 구독하고 있는 저널이 자신들이 참여하고 있는 컨소시엄 라이선스에 포함되었는지 조회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용역관리는 미래의 관리대행사나 서비스대행사가 독점되는 우려가 있으며,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서비스대행이 바뀌면 인터페이스가 바뀌게 되어 이용자의 혼란이 우려되기도 할 뿐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출판사 및 정보제공사에서 계약기관에게 제공할 할인가가 관리대행사에 제공됨에 따라 회원기관의 데이터 구입비용의 할인혜택이 적어질 수도 있다.

나. 협상 모델

“성공적인 협상은 결코 떠들썩하게 소란하지도 않고, 싸움도, 전쟁도 아닌 쌍방이 무언가를 얻었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비록 한 쪽이 상당히 많은 것을 포기하였어도 전체적인 그림이 양쪽 모두가 이득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성공적이라 할 수 있고, 이 때문에 협상은 상호 협동적인 업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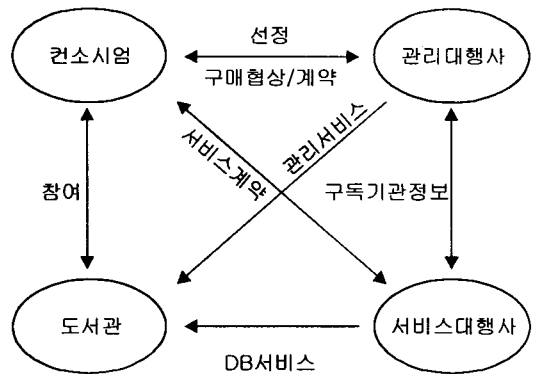


그림 6. 용역관리모델의 체계도.

협상은 4가지의 형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리의 목표는 물론 모든 협상에서 Win-Win 모델을 추구함은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만족할만한 협상모델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최근 전자정보의 라이선싱 경향이나 정보출판/제공업계의 동향과 도서관의 DB 이용 및 구매, 이용자들의 요구 등에 관한 상세한 현황 파악과 협상자의 협상기술 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

(1) Win-Win 모델

도서관과 정보제공/대행사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모델로 미래에도 함께 일할 수 있는 기대로 안정적이며, 편안한 파트너십을 유지할 수 있다.

(2) Win-Lose 모델

도서관이 만족할 수 있는 계약을 이끌어 냈으나 정보제공/대행사는 목표에 미치지 못한 형태의 모델로 한 쪽에서 너무 심하게 협상을 물고 갔을 경우 간접적인 보복을 초래할 수 있다.

(3) Lose-Win 모델

정보제공/대행사는 만족하나 도서관에서 너무 많은 양보를 한 계약으로 잘못된 예상으로 초래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래에 Lose-Lose 협상으로 갈 가능성이 많은데, 때로는 의도적으로 계산된 모험일 수도 있다.

(4) Lose-Lose 모델

도서관과 정보제공/대행사가 더 이상 함께 일하고 싶지 않은 경우로 어느 쪽도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도록 스스로 노력하지 않아 너무 무력하고 나태하고 소홀한 경우로 쌍방이 모두 협상에 책임이 있다고 본다.

4) 국가 주도적인 컨소시엄 모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2000년 7월 전국의 대학도서관 및 연구도서관을 대상으로 대학도서관 해외 전자정보 구독 현황을 설문지 조사하여 총 121개관의 응답을 회수,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현재 국내 대학도서관 107개관에서 도입하여 이용중인 데이터베이스는 총 799종이며, 2001년의 총구독 종수는 29%의 증가를 예상하였다. 또한 응답기관의 89% 이상이 국가기관이 공동구매를 주도할 경우에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밝혀 국가 주도적인 컨소시엄 운영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하고 있다. 이는 공동구매로 얻어지는 예산과 인력의 절감 및 선정에 따르는 부수적인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기대감의 결과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우리의 학술정보이용과 협상 및 계약업무의 환경적인 배경과 외국에서의 컨소시엄 운영사례 및 연구를 기초로 하여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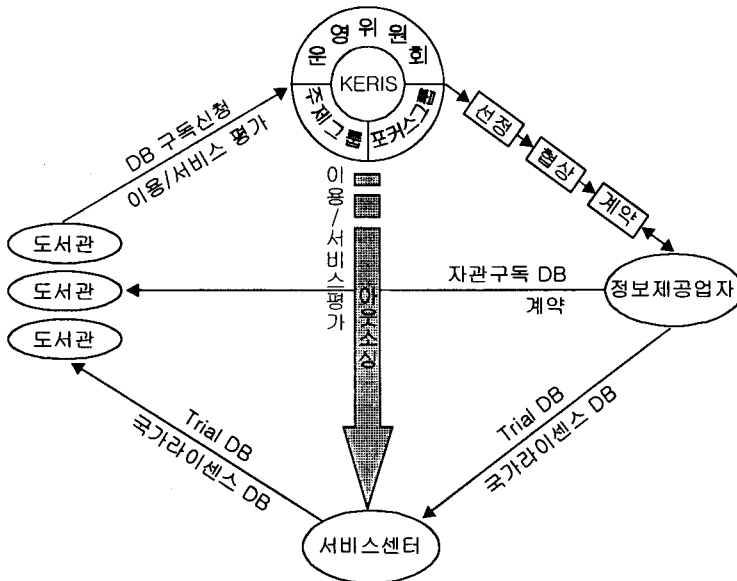


그림 7. 해외DB 공동구매를 위한 컨소시엄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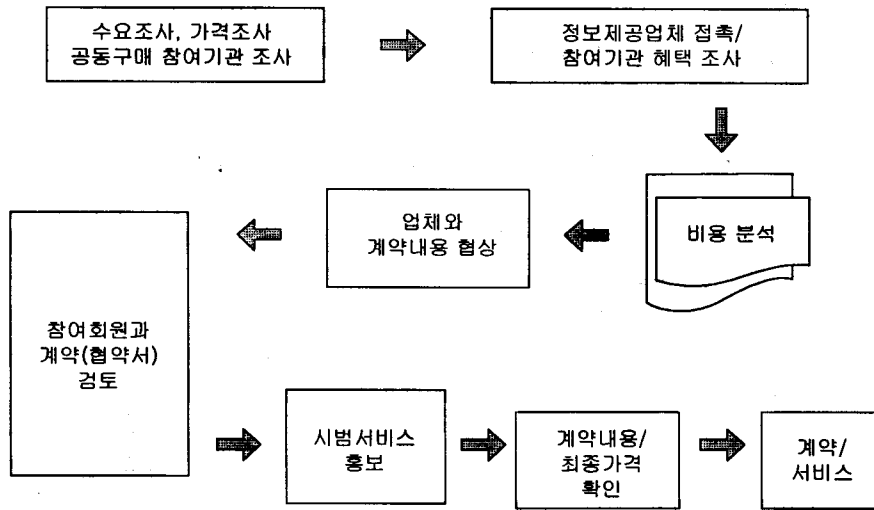


그림 8. 공동구매 업무 추진도.

음과 같은 해외DB 공동구매 컨소시엄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가. 관리운영 모델은 중앙관리 모델을 채택하고, 컨소시엄을 주관하는 교육학술정보원에 상설기구로 운영위원회와 포커스그룹을 두는 한편, 한시적인 기구로 주체그룹을 둔다. 포커스 그룹은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와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 및 평가를 제공하고, 주체그룹은 새로운 데이터베이스의 도입을 위한 이용자와 전문사서, 시스템 전문가의 요구를 검토하게 한다. 컨소시엄의 운영과 기준 마련, 협상전략, 구독료 배분 등 필요한 제반 정책은 운영위원회에서 지원한다.

나. 협상 진행중이거나 국가 라이선스로 계약 완료된 데이터베이스의 이용을 위하여 별도의 서비스 센터를 둔다. 이 서비스센터는 용역계약에 의하여 운영함으로써 교육학술정보원이 서버 및 이용관리에 소요되는 인력과 장비 등의 예산을 줄이고, 무엇보다도 컨소시엄 주관기관으로서 데이터베이스 선정과 협상, 계약에 주력하는 한편 급변하는 환경에 맞는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을 위하여 계약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는 별도의 기관에서 지원하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다. 위와 관련하여 현재 교육학술정보원에서 국가 라이선스로 구독하여 전국의 대학 및 연구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도 서비스 센터로 이관하

여 이용시키고, 서비스센터의 설치가 어려울 경우 정보제공사에서 각 대학에 직접 서비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보원은 이용 결과에 대한 보고만 확인하도록 한다. 이는 늘어나는 교육학술정보원의 국가 라이선스 학술정보와 비례하여 증가하는 이용자 접속 및 이에 따르는 클레임 등이 한계에 달하게 될 때 교육학술정보원 고유 업무의 우선순위가 혼동될 것을 경계하여야 한다.

5) 공동구매 추진과정

전자자료의 공동구매 협상을 추진하는 과정을 요구분석단계, DB 선정단계, 업체 선정단계, 가격협상 단계, 계약단계의 다섯 단계로 나누어 보았다. 세부 작업 단계는 컨소시엄의 성격과 규모, 검토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따라 생각할 수 있다. 그림 8은 기본적인 세부업무 추진단계로 진행과정에 대한 체크리스트 작업이 필요하다.

IV. 결 론

전자자료 특히 온라인 인터넷 자료는 소유와 이용을 위한 접근에 대한 개념이 분명한 인쇄자료와는 달리 라이선스 계약에 따르는 일정 기간 동안의 적절한 사용을 허용하기 때문에 구입에 있어서 전문적인 데이터베이스 계약 협상 기술과 환경이 요구된

다. 이 연구는 현재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해외 데이터베이스 공동구매 업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컨소시엄 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교육학술정보원에게 아래와 같은 컨소시엄 모델 운영 관리를 제안하였다.

1. 관리 운영모델은 중앙관리모델로 하여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해외 학술정보를 Win-Win 협상으로 이끌어 효율적인 구독관리를 지원한다.

2. 이용을 위한 서비스센터를 운영하여 국가 라이선스 데이터베이스와 협상대상 데이터베이스의 Trial 이용을 지원하고 이용기관에 대한 서비스를 전담케 한다.

3. 가격모델은 도입하고자 하는 데이터베이스에 따라 국가 라이선스 여부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국가 라이선스로 구입하여 전국 대학에 서비스 하는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일반적으로 연간이용료 지불방식을 택함이 바람직하다.

4. 구독료 배분모델의 적용에 있어서는 컨소시엄

회원기관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데이터베이스에 따라 배분 원칙을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용기관간의 지불에 따른 이해 관계가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배분 기준과 내용은 항상 공개하도록 한다.

5. 이용모델에서 현재는 국가 라이선스 데이터베이스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게이트웨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학별 구입 데이터베이스는 기관내에서만 서비스하고 있으나 컨소시엄 회원기관의 소장목록과 개별구축한 전자정보가 구입 데이터베이스와의 상호 링크로 학술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통합서비스를 지향하여야 한다.

6. 아카이빙 모델과 관련하여 대학별로 각기 구입하여 소장하고 있는 백데이터의 이용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아카이빙 센터 운영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7. 주제그룹 운영과 Focus그룹 운영으로 해외 데이터베이스의 신규도입과 갱신에 따르는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한다.